

제424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8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 위원장(윤영석) 인사 2
2. 간사 선임의 건 2
 - 간사(오기형·김미애) 인사 20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남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로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남인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남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구두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러한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인순 방금 오기형 위원님께서 윤영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윤영석 위원님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직무대행, 운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운영석) 인사

(10시05분)

○위원장 운영석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운영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연금개혁 과제를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4선 의원이신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저를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 오기형 위원님과 김미애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진일보를 이뤄 내시는데 역할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정부 등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연금제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받들어서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개혁의 중차대한 과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번 연금개혁특위에 우리 국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명망 있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과제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세대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우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의 간사를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된 두 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금개혁특위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중차대한 개혁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소중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것이 우리 위원회 논의 안건 선정 및 연금개혁의 방향 설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인사말씀의 순서는 방금 간사 위원님으로 선출된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인사를 해 주시고……

○**오기형 위원** 나중에 하는 게 어때요,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위원장 윤영석** 그럴까요?

○**오기형 위원** 예.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앉으신 순서대로 서로 교차해서 인사말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인사말씀과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더 오래가는, 더 든든한 그리고 더 평등한 국민연금,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가치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다른 어느 것 하나를 우선할 수 없는 가치들이기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꾸려진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이 삼각 편대 위에서 최소한의 버팀이 아닌 괜찮은 시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구조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인해 보험료율이 4% 인상돼서 13%가 됐습니다. 더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서 국민께서 더 큰 부담을 감내하게 되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모수개혁 논의에 있어 국민께 더 큰 책임을 요구했기에 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구조개혁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금특위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투입되는 정부재정 지원 규모는 공단 운영비 명목이 다입니다. 한 110억 원 정도 되지요. 명목적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소극적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조개혁에서 국가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재정의 책임을 다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수개혁 이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 1%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91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GDP 1%는 23년 기준으로 24조 원 정도 됩니다.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해야겠지만 이 밖에 놓인 소위 연금 사각지대, 그러니까 연금을 납부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곳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구조개혁에서 핵심 과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분석하면 남성은 76만 원, 여성은 39만 원으로 수령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 납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된 사람이 342만 명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683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의 경계에서 안으로 가입자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밖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들이 연금 구조개혁 과제로 산적해 있습니다. 불편하고 민감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마주하고 어떻게든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 나갈 구조개혁 논의에서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63세입니다. 2033년 되면 65세로 늦춰집니다. 연금 수령 시기까지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정년 연장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이 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겠지요. 청년 고용 불안정성 또한 심화가 되겠지요.

이처럼 구조개혁 과제들은 고차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참여 또한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 참여 없는 정책의 국민 수용성은 반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의 노후를 그려내는 커다란 퍼즐입니다. 노후 보장이라는 것을 물을 거꾸로 돌려 보면 노동으로, 교육으로, 돌봄으로, 출산으로 국민 삶 전반에 유연성과 탄력성과 회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퍼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중간 그림은 달라지겠지만 결국 완성 그림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일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고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을 둘러싼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고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세대 갈라치기 또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연금

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연금특위의 유일한 90년대생인 것 같습니다.

포천시가평균 김용태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청년층의 비토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번 모수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결국 기성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는 데 있습니다.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낸 연금을 받을 때인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5년 올해 20살인 청년은 2070년 65살이 되어야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 제도하에서 고작 1년밖에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라고 주장하니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071년 이후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든가? 두 번째, 한 10년 뒤쯤에는 내는 연금은 또 올리고 받는 돈은 줄이는 것을 또다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청년세대의 큰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모수개혁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히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가 신뢰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합니다. 2071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100년은 지속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청년세대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젊은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도 다양한 해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작 이 연금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허울뿐인 연금특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치열하게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활발한 논의와 열띤 토론을 통해서 꼭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진짜 개혁안이 연금특위에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연금특위 위원이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한 분은 사학연금 가입자이시고 한쪽은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입니다. 특례 연금 짧게 가입해서 한 달에 삼십, 사십만 원 받고 계십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셨던 분들이지만 노후의 삶은 차이가 큼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로 OECD 최고인 이유도 국민연금이 너무 늦게 도입돼서 지금 초고령층 노인들이 제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모순이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있고 이 모순이 청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복지팀장으로 일하던 2012년부터 10년 넘게 연금정책 개선 활동을 해온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에 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주장은 정확하게 반대 주장으로 모순됩니다. 연금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 안 되려면 소득대체율을 깎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깎아야 된다는 주장은 청년들에게 더 불리한 주장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국민연금 가입자고요 80대 부모님 노후 챙기고 있고 10대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세대로 분리해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구 안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의 삶이 어려우면 그 부담은 그 자녀인 중장년한테 돌아오고 중장년의 삶이 어려우면 그 자녀인 청년, 청소년의 삶이 망가집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효과로 65세 노인의 빈곤율이 20%대로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노인 소득 중 자녀들이 부담하던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0년 전 46%에서 최근 14%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자식이 부모 생활비 절반을 부담했다면 이제는 용돈 정도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가 점점 발달하면 이처럼 개인이 각각 가구 내에서 부담하던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연금 문제를 세대 간의 대결로 보는 것은 연금의 효과가 가구 단위로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의 노후가 힘들어지면 청년들의 삶은 더 고달파집니다. 노후 대비되지 못한 부모님, 조부모님을 둔 청년들의 고통을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수개혁에서 연금을 깎지 않았다고 청년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소득대체율 깎으면 그 효과는 지금부터 보험료 납부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가 끝난 노인들, 거의 끝나는 장년층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연금을 납부하는 청년들의 미래 연금만 대폭 깎입니다.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모수개혁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만에 처음 시작한 연금개혁이 연금 소득대체율을…… 연금 보험료를 올린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지요? 이것으로 50년 뒤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수익률 제고, 연금 납부 연령 확대,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 국고 지원 등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개선을 통하여 국민

모두 존엄한 노후가 보장받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목표도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바라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고 연금제도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머리 맞대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김재섭입니다.

국회에 등원하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참 욕 많이 먹었는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게 아마 이번 국민연금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에 제 주변 친구들한테 그전에 없었던 강도로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연금특위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 특위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같은 느낌이었습시다. 사실 재정이 화수분이어서 청년세대들도 많이 내고 많이 받고 기성세대들도 안전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뼈를 깎는, 살을 깎는 구조개혁, 모수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만 원을 더 내고 5000원을 받는 개혁을 어떻게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번,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쉽게도 이번 개혁안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우리 5차 재정추계에 기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놓은 연금 자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혁안은 체질을 개선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개혁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르핀 주사를 주고 호흡기를 다는 형식의 개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안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국민연금이 오래 가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데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관련해서는 너무 천차만별로 저희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제 입장을 처음부터 드리지 않는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 회의인 만큼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약속하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후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의의 기본 자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철저하게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5차 재정추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재정추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우리 연금특위에서 내놓는 모든 자료는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논의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자료의 핵심 정보와 데이터는 반드시 그 가정을, 왜 이렇게 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한 논의인 만큼 모든 회의는 우리가 기탄없이 다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민간 자문위원들을 포함해서 자문위원들을 선임할 텐데 그 회의 역시도 공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특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들의 논의가 저희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속기록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충분하게 매 회의 때 제공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특위의 빈도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주 1회를 제안하는데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소 주 1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선도 있고 앞으로 정치 스케줄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365일 중에 정치 스케줄 없는 날 따지는 게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있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빈도를 너무 느슨하게 해 버리면 저는 연금개혁 이것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1회 빈도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합의문 작성을 여야 대표님께서 해 주셔서 가지고 이번에 개혁 발표를 한 건데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조의 5항을 보게 되면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명문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이번 개혁안에서 논의를 하고 마쳐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 당 1회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핵심 정보, 데이터 등등은 확실하게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함께 또 김미애 간사님, 오기형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연금특위에서 일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모수개혁이 18년 만에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개혁의 과제들은 지난번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간에 갑론을박을 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위원회에서 의제 설정을 통해서 공의를 하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또 자문위원회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성숙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을 때 논의가 어쨌든 상당히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또 우리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다음에 저희가 구조개혁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잘 의제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프로세스를 잘 설계를 해 주시고 특히 국회의장님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사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특별히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잘 설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일원동·수서동·세곡동·자곡동·울현동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해서 제 개인 소회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 출마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몹시 힘들었습니다. 내가 꼭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사회의 구조개혁 없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만족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구조개혁의 핵심이 연금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연금은 연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본시장의 문제, 국가재정의 문제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 삶의 문제가 엉켜 있는 고차방정식입니다. 이것 하나만 풀어도 제가 작년에 그렇게 고민해서 출마를 결심했던 저의 그 고민이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연금 구조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 관점을 공유드리면서 제 역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아니라 연금을 구해 내는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누가 뭐래도 이대로 두면 몇 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70년이 됐든 2050년이 됐든 연금은 죽습니다. 우리는 죽은 연금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금을 구해 내는 구조개혁을 반드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연금만 구해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노후와 우리들의 삶을 구해 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문제이지만 납입기간을 포함하면 인생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거쳐서 납입한 연금이 죽으면 안 되겠고 또 그것을 납입한 후의 우리의 노후가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연금도 구하고 우리의 노후도 구하는 이중의 숙제, 이중의 난제를 마주해 오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또 전달드리고 싶은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납입하면 우리가 납입한 연금은 우리가 수령할 때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까지 운용이라는 여행의 시간을 거칩니다. 납입하고 받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우리가 간신히 고친 것이 모수개혁이고 40년간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가 여행하는 그 길고 긴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저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납입한 그 보험료는 자본시장이라는 곳을 여행합니다. 해서 자본시장 속에서 우리의 연금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여행을 해낼 수 있는지 이것을 자본시장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결론적인 마무리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드린 이유는 문제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정하지 않고 해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꼭짓점을 찍어야 나침반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해내야 될 연금의 문제, 목표의 문제, 해법의 문제, 일단 문제를 정의하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면 북극성을 향하는 나침반처럼 저희 연금특위의 여행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최선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우선 18년 만에 여야 합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연금개혁을 통과시킨 것 자체는 일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은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금개혁 자체가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현재 상황으로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의 확대가 부모의 부양 부담을 줄여서 결국 청년에게도 손해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세대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 내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금개혁 자체는 숫자를 놓고 옳고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끌어 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시끄러워도 과정을 찬찬히 거쳐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중시하다 보면 근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상을 야기했던 그런 형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어느 분들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숫자를 들이대면서 가르치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의 현상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금 고갈 자체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 하고 보정을 아무리 하더라도 청년세대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지워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청년들의 이기심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번 연금특위를 통해서 구조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할 텐데요. 청년들과 소통하는 장 역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당부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금특위에 오신 이상, 함께 우리가 회의체를 구성한 이상 일단 정당 대 정당의 생각은 두 번째로 미루어 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굳이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지 의아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하신 분, 2030의 목소리가 정말 잘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연금특위 사퇴하시고 아쉽게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참 아쉬운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당 대 정당의 논리를 앞세우고 상대 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여지를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진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결과, 진짜 우리가 미래세대와 현재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한 결과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옳은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그리고 세대 내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청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분께서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빈도만큼 중요한 게 밀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방금 그 내용들과 함께 이번 우리 연금특위의 회의 과정 하나하나에 정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우재준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금개혁을 지금 왜 하는지 저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연금개혁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돈을 내야 할 사람은 줄어 들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오르는 모수개혁을 저희가 해냈습니다. 이게 청년세대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납입하는 돈이 약 40% 정도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가 이것을 감내할 생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수개혁안에서 청년세대가 분노하는 것은 그 고통을 우리만 감내했다는 겁니다. 이 연금개혁이 처음에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시작해 놓고는 갑자기 어느 순간 받는 돈도, 소득대체율도 더 올려야 한다면 그런 논리가 나오더니 갑자기 연금 재정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처음 시작과는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성세대는 더 받아 가고 청년세대는 더 내게 되는, 더 고통만 받게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금으로 더 충당하면 된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그 세금은 무슨 하늘에서 나오니까? 그 세금 분명히 보험료 내야 될 사람들이 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내야 됩니다. 받는 돈을 줄이지 않는데 내는 돈을 더 내지 않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구구조가 거의 국가 재난 수준으로 지금 청년세대가 줄어드는데, 미래세대가 줄어드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는 돈을 더 받으면서 내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우리가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정안정 조치에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기성세대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인빈곤율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빈곤 문제 잘 알고 있고 빈곤한 노인들한테 받는 돈 줄이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여유 되시는 노인분들 많으십니다. 몸이 건강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씩 줄이는, 그렇게 해야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첫날이니까 오히려 너무 죄송스럽지만 이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각 당의 여러 위원분들이 저는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쭙보고 싶은 게 비교집단체 몫으로 지금 진보당의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양당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재정안정화 조치를 향후에 논의하겠다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합의를 하고 지금 연금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는 진보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반대하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43%도 모자라서 50%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금개혁 합의문의 이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동의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안정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저는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 좀 빠져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오기형 위원 아니, 이견 좀……

○모경종 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제가 분명히……

○전종덕 위원 너무 무례하십니다.

○오기형 위원 잠깐만, 잠깐만.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첫날이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에……

○전종덕 위원 이런 무례한 발언을……

○모경종 위원 이것은 신상발언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석 조금 인사말씀 들어 주시고, 마무리한 뒤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나중

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제가 더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더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분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위원님, 3월 24일 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 입 좀 다물고 있으십시오’.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오기형 위원 저기, 잠깐만요.

○전종덕 위원 너무 과하십니다.

○우재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리신 겁니다. 직접 올리신 겁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기……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이것 너무 과하십니다.

○위원장 윤영석 우재준 위원님, 인사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인사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위원장 윤영석 인사말씀……

○우재준 위원 아니,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전종덕 위원 연금특위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오기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재준 위원 글을 올리셨습니다. 입 다물 사람에 제가 들어갑니다.

○전종덕 위원 우재준 위원님, 무슨 자격으로 연금특위에서 나가라 마라 하는 거예요?

○모경종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건 좋은데 지금 발언이랑 안 맞다는 말이에요.

○우재준 위원 입 다물 사람에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첫날부터 이런 발언 하셔야겠어요?

○위원장 윤영석 우재준 위원님, 인사말씀 마무리……

○김재섭 위원 마무리는 할 수 있게 대답은 들어야지요. 저희가 시간제한은 없으니까……

○위원장 윤영석 인사말씀 마무리하셨습니까? 마무리하시고……

○우재준 위원 저는 강선우 위원님이 입 좀 다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특위 위원들 서로 간에 위원님들을 지칭해서 딱 이렇게 하시는 건 인사말씀 중에 조금 서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발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서로 좀 자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지금 양당 또 진보당 위원까지 선임 자체를 갖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같이 회의하지 말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떤 원칙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건 아닌 겁니다.

○우재준 위원 합의문에 저희가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스스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석 나중에 그것은 또…… 이 정도로 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다 헌법기관으로 그만큼의 책임이 있고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그렇게 색안경 끼고 선입견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석 특위 위원님들 서로 간에 딱 지칭을 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서로 간에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우선 인사말씀 다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강선우 위원님?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깐 먼저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두 분을 직접 특정했기 때문에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시지요. 그리고 서로가 상식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오늘 첫 회의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은 가급적 이 회의가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 위원님들 간에 특정한 위원님을 딱 지정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3분 내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저는 상임위원 특위원 하면서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민주당 국회 연금특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정확한 위당이 ‘유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급했던 또 다른 정확한 위당이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젊은 의원, 젊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입니다.

제 이름을 언급을 하셔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를 떼어 내서 본인을 지칭했다고, 그거야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유의 영역이겠지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만큼 제 실명을 언급한 점 그리고 제 의정활동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한 점 그리고 그 비난조차도 전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하나 올려내듯 한 단어만 올려내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도 제가 입을 다물라고 했다는 점 모두 다 거짓입니다. 관련해서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저는 모두발언도 아직 못 했는데 제 이름이 거론돼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상당히 무례하고요. 저도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미 권한 밖의 너무 과도한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나이가 청년을 대변하는 것이라든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을 대변하냐는 문제도 있겠지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시하고 토론하고 하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특위의 역할 아닙니까? 본인만의 주장이 옳고 남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고 이게 정치 영역이고 국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해 가자고 이야기하는 첫 자리에서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저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재준 위원님의 생각이신 거지 모든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세대 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발언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명백히 사과를 위원장님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석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박수민 위원 저도 같은 공간에서 들었기 때문에 강선우 위원님이나 전종덕 위원님 약간 불쾌하실 수 있는 뉘앙스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재준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정치적 견해고 여기에서 우리 연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지금 구성에 대해서 첫날 얘기 안 하면 언제 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받았고요.

이것이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존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연금에 대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한번 본인이 궁금하고 연금에 대해서 물었지, 강선우 위원님의 인격이라든지 전종덕 위원님의 인격 저희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연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오늘 첫 구성 하면서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떡하냐 하지만 오늘 아니면 또 언제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여기 다 들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는데 왜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김미애 위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저도 한 말씀 하고.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제 이름 언급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그것은 박수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고 느끼시고 들은 것이고요. 저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듣고 받아들인 바는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한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우선 일단 진행은 인사말씀 좀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특정한 위원님을 지칭해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회의가 참으로 중차대한 우리가 지금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그런 오늘 첫 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여러 차례 많은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면 대국적으로 볼 때 앞으로 회의가 상당히 참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취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특위에서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좀 원만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종덕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선우 위원 원만하게 이해를 하는 마무리는 사과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석 그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말씀 마무리하시고……

○오기형 위원 아니, 잠깐 이 지점은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위원장 윤영석 오기형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오기형 위원 뽐 때려 놓고 뽐 맞은 사람에게 참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저는 좀 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했으면 과했다고 표명을 하는 게 서로가 이후에 신뢰감 있게 가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연금특위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서로가 설득하고 설득하고 더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정당 간의 이슈가 아니라고 접근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 분 한 분 한 분의 선의와 진정성, 성실함을 더 촉구해 내고 더 의도해 내고 더 끌어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짝어서 하는 표현이 국민들이 보기도 언짢은 표현이 됐는데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자 그러면 감정 상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신뢰가 축적되겠습니까?

지금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혼신의 100%가 아니라 200%, 300%를 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런 회의를 시작하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재준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석 김미애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영석 우선 김미애 간사님 말씀 듣고……

○김미애 위원 우리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하게 된 게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겪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간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하고 나서 그게 무슨 개혁이나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반 발짝이라도 나가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기 참 힘들다, 모수 조정이다, 그렇게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아마 30대가 세 분인데 아까 나이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나면 그 세대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 나이에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당에는, 그때 저도 엄청나게 이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달게 받겠다, 그러나 목소리 낼 때 내지 않고 있다가 뒤에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목소리를 저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은 앞으로 우리 국회 연금특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한 그 결과물을 말씀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미 국회의 연금개혁은 끝난 것 아니냐, 구조개혁을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될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도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꼭 미완의 개혁을 완성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30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셨고 또 당사자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 안 된 데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면서 그게 다소 실명을 언급하면서 한 부분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오늘 첫날 이렇지만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보면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데 대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다소 듣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우리가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한 배경 그리고 향후에 달성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2030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 취지에서 출발한 것인데 다소 듣기에 불편하고 한 부분이 있었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전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우리 박수민 위원님께서서는 수습을 하셨고 우리 김미애 간사님께서서는 부적절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부적절성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가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 의사 표현하셔야 되고요. 우리 우재준 위원님이 의장 위에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특위위원을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과 표명을 하셔야 되고요.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하자는 데 여기서 이의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청년세대 얘기를 듣고 청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연금이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그래서 본인이 듣고 있는 청년세대가 전부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이견이 있으면 같이 내놓고 자기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 있으시지요. 오버하신 거지요. 이것 분명하게, 무례하게 동료위원을 거론해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석 전종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서로 간에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특위의 오늘 출범 첫날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씩 더 이해를 하고 또 서로 간의 감정적인 그런 충돌은 조금 서로 자제를 하면서 앞으로 회의가 잘되기를 같이 기원하면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회의 진행은……

우선 인사말씀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 우재준 위원님의 입장 표명을 듣고 하시지요.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듣고 하시지요.

○위원장 윤영석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드리고 잠시, 조금만 양해……

○오기형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듣고 하시지요.

○위원장 윤영석 아니,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재준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인사하고 합시다. 본인도 생각을 좀 하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영석** 그래서 아직 인사말씀도 안 끝났는데,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좀 존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두 분 인사만 한 다음에……

○**위원장 윤영석** 그래서 두 분 인사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간사님 인사말씀하시고……

○**전종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상황을 종료해야 다음에 모두발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미애 위원** 좀 존중해서 합시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으니까 좀 존중하고 합시다.

○**위원장 윤영석** 조금 시간을 드리지요. 우리 우재준 위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박홍배 위원님이랑 두 분 인사말씀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위원장 윤영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다 매듭짓고 가지지요.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충분히 지금 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재준 위원님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말씀 먼저 마무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홍배 위원님 차례지요.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박홍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발언을 준비하시고 사과의 말씀도 다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아닌가 이 말씀 먼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재준 위원님 오래 봤습니다. 심성이 아주 고운 분이고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최근에 본회의장에서의 ‘공산주의자’ 발언과 약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저는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비례대표 박홍배 위원입니다.

중대한 책무가 부여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나 재정 논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특히 언제까지,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노동시장 문제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소득보장의 문제를 함께 놓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들은 아예 수급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특히 국민연금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문제,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정년 연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 논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상당한 수지 불균형 상태이고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최소한의 노후 생계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국민 불만만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국민 삶의 문제이고 삶의 질과 노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고 수급자와 가입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가 먼저입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입니다. 평생을 일하고도 노후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목표 아래 세대 간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특위에서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정합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박홍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이후에 우리 우재준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된 발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미래와 노후를 논의하는 연금특위에 함께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3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9.1%가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0대의 경우 무려 62.4%나 됩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과된 안이 노후 최소 생활비에도, 노인 빈곤선에도 턱없이 낮은 임금이라 저임금, 노인 빈곤 고착화의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혜택은 부모세대가 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왜곡으로 국민 불안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세대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아닌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에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다만 인상된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 면에서는 더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금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적금이 아닙니다. 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공존으로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공적 부조이자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빠른 고령화 속도는 2028년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고령화의 충격을 완충할 시간을 갖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노인 빈곤 해소와 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군복무, 특수고용·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 부담분 완화, 프리랜서·자영업자·지역가입자 등 지원을 확대하고 크레딧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특위는 국회만의 논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는 우리 연금특위가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을 높여 내고 청년세대의 박탈감이 아닌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간사(오기형·김미애) 인사

(11시08분)

○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오기형 간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우재준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윤영석 예, 먼저 인사말씀 마무리하시고 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우재준 위원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퇴직연금이나 역모기지 등을 언급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직역 연금제도도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주로 제기되는 사항들은 두 가지입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먼저 사각지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가입 대상자가 3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시적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해소의 해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방안을 이제는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되고 그 방법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이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큰 시각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재정 투입 여력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재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특위 운영과 소통 방식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올해 연금개혁에 대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현실이고 일부 사실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내는 목소리를 정치권이 잘 청취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후에 또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나왔듯이 특정 정당의 위원들의 인선에 대해서 자격 유감 내지 입장 표명 요구 이것은 정말 되게 예상 밖에,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청년 연금토론회, 지난주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열린 자세로 많은 분들과 소통할 겁니다.

또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도출을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21대 연금특위에서도 민간자문위원회·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모수개혁에 한걸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민간자문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숙의적인 토론 절차를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또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함께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떳떳하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오기형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고 부산 해운대를 출신 김미애입니다.

제가 이른바 모수개혁이라고 불리는 그 개혁 과정에서 강선우 위원님과 참여를 주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비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도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게 2030세대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관찰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특위의 간사 자리는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고 다시 제게 주어졌습니다. 이 무거운 자리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오기형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되었고 어제 복지부는 연금개혁시행추진단을 출범하여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만으로는 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청년세대·미래세대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청년들을 희생양 삼았다는 주장에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우리 특위가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부담, 고통을 전 세대가 분담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지난 21대 연금특위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특위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수 위원님들이 외부 민간자문위원 구성의 필요성은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의 구성원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이번 특위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1대에는 1·2기 민간자문위원 20명·16명 또 공론화위원회도 11명이 있었는데 2030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다수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그 구조에서 2030의 수용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22대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특위 관련한 위원회 구성을 2030세대가 과반 이상 되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그겁니다. 2030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왜 국민연금만으로 공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 하느냐, 다른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크레딧을 확대하든 국고 투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현 세대부터 분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금 고갈 이후에 미래세대가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개혁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다, 그래서 개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연금특위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튼튼한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기능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정치 여건과 무관

하게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논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개혁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때 보다 신뢰받는 특위가 될 것입니다.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제별 쟁점도 상당하여서 모수개혁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국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저는 이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하고 또 조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정말 우리 미래세대·청년세대가 공감하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서 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훌륭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우재준 위원님께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모두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고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열정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간자문위원회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2030 또 소외계층 등 연금의 그러한 것을 넓힐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해 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재준 위원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우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연금개혁에는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의 책임도 막중하고 반드시 저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듣기에 기분 나쁘셨을지 모르겠지만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개혁 합의문에 있습니다. 연금개혁 합의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이거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분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들어오신 진보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에 동의하는지 묻는 것, 확인하는 것은 첫날에 반드시 해야 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이 제가 이렇게 거칠었음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페이스북은 이걸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쓴 말 아닙니다. 다시 읽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쓴 말 아니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적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서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남인순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오기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남인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한 사람이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안 했거든요.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우재준 위원님께서 사과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마쳤으면 했는데요. 사과를 하시지 않았네요.

지금 합의문에 있는 거에 대한, 제가 계속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율을 올릴 수도 있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아닙니다. 재정안정화 조치라는 것이 바로 자동안정화 조치가 아닙니다. 그 워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그 의견을 밝히셨다고 해서 그 합의문과 반하는 어떤 의사를 가졌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회의 참석에 대해 의장님이 분명히 여기 연금특위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신 건데, 의장님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 사과를 끝내 안 하셨는데 사과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페이스북과 관련한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자회견장에 가서 하세요. 연금특위에 와서 얘기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각각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뭐하고 이런 장이 아니거든요, 연금특위는. 각 당의 정쟁의 장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래를 위해서 하자라는 얘기는 다 같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어떤 정치적 의사를 페이스북에 얘기했다, 그거 여기 와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개인 페이스북에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소통관에서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지 연금특위 여기 회의장에 와서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원만한 회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저 당사자 발언시켜 주시지요.

○위원장 윤영석 예, 수고 많으셨고요.

김미애 간사님 말씀 듣고 다음에 전종덕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우재준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2대 연금개혁 합의문 및 별지 관련해서 합의문 2의5항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 또 시간을 끄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대안 중의 하나로 자동조정장치 조문 제목을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해 왔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자동조정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저는 오늘은 언급 안 하기를 바라고 향후에 이것 관련해서 연금개혁특위가 운영되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간단히 유감 표명과 사과 표명을 하면 될 것을 여기서 무슨 또 합의문의 내용이 뭐고 내 취지가 뭐고 내 말의 뜻이 뭘데 내 말의 뜻을 왜 못 알아듣느냐는 식으로 훈계하듯이 다른 위원님들에게 말하는 게 적절합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석 앞서 우재준 위원님 말씀 중에도 표현상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분한 양해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좀 듣고,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 저는 앞으로 합의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주 중요한 합의를 해내야 되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당사자로서, 일정 부분 표현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해서 그런 점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유감의 뜻을 한번 표현해 주시지요.

○우재준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위원님들.

○강선우 위원 방금 유감 표명한 것은 전종덕 위원님 관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강선우 위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아니,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강선우 위원 제가 듣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전체적으로 강선우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석 말씀을 꼭 하셔야 되실까요?

○전종덕 위원 예.

○위원장 윤영석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종덕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오기형 위원 아니, 그냥 우재준 위원님께서 딱 두 가지 발언에 유감이다 딱 한마디 하고 끝냅시다.

○전종덕 위원 저는 우재준 위원님의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아니, 이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미애 위원 그 정도로 그냥 합시다. 그 정도 합시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재준 위원 말씀하셨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더 하실라고요.

○전종덕 위원 아니, 저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석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서로가, 제가

방금 명확하게 우리 우재준 위원님께 오늘 처음 인사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현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유감을 표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강선우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종덕 위원님 전부 다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우리가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저 짧게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윤영석** 잠시만요. 이 사안과 관련 없는 겁니까?

○**김재섭 위원** 관련 없는 겁니다.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석** 관련 없는 것 같으면 김재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신상과 관련한 발언은 주셔야지요.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 발언하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었던 우재준 위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개혁 이랑 모수개혁이랑 자동조정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차치하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철저히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기형 위원** 그것은 이후에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해 보고 답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굳이 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보고 또 필요하면 확인해 드릴게요.

○**위원장 윤영석**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데 동의가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고 저희가 팩트 가지고 이야기……

○**김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떤 걸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오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 가지고 지금 논쟁할 지점이 아니어서……

○**전종덕 위원** 그것은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 자체는 지금 여기서 논쟁하고 합의서 쓰고 그럴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윤영석** 오늘 5차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합의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 그전에 제가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이야기로 그러면 우재준 위원은 지금 현재 연금특위 첫 회의부터 동료 위원들의 자격을 운운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우재준을 교체해 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석** 그것은 좀 자꾸……

○**김미애 위원** 그것은 좀 지나칩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게 과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윤영석 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만 좀 합시다, 간사님.

○오기형 위원 서로가 이런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려면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석 오늘……

○오기형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게 적절합니까?

○김미애 위원 좀 그만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석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여러 충돌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재준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특위가 앞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필요한 거라서……

아까 민간자문위원 오기형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하셨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님이 좀……

○위원장 윤영석 지금 제가 회의를 하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요. 우재준 위원님 정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이야기를 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윤영석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전종덕 위원 저는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감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전종덕 위원 이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으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요. 그런데 이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미애 위원 이 정도로 합시다. 계속 이것 가지고 할 겁니까? 아까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좀 포괄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석 유감의 뜻을 충분히 표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종덕 위원 그것을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끝 필요가 없지요.

○김미애 위원 깔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만……

○전종덕 위원 아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요. 왜 잘못했는데 사과를 못해요?

○김미애 위원 그 정도로 좀 넘어가요.

○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계속 지금 전종덕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또 강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또 더 격화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분이?

○강선우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윤영석 꼭 하셔야 된다면 두 분 말씀만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

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김미애 위원** 아니, 아까 그 정도로 했으면 좀 받아들이고 갑시다.

○**위원장 윤영석** 간단하게 두 분, 더 격화시키는 말씀보다는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종덕 위원님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선우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양해와 유감은 사과가 아니지요.

○**위원장 윤영석** 아니,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전종덕 위원** 양해와 유감은 사과가 아니고요. 잘못하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윤영석** 그것을 우리는 사과라고 합니다. 유감과 양해……

○**전종덕 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 누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양해했다가 옆에서 설득하니까 유감 표명하는 이것은 사과가 아니지요. 청년 정치인을 자처하시는 우리 우재준 위원님께서 이것 비겁한 거지요. 저는 이렇게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것은 또 지나칩니다. 무슨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종덕 위원** 마치 정말 내란수괴 윤석열의 입틀막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김미애 위원** 아이, 좀 그만하세요! 그게 왜 여기서 또 나오니까?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우재준 위원님이 나가시면 돼요.

○**위원장 윤영석** 그래서 제가 이제 발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종덕 위원** 정확히 사과를 하세요. 정확히 사과를 하시라고요.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사과를 해야지 왜 말을 또 돌립니까?

○**위원장 윤영석** 전종덕 위원님…… 자,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종덕 위원** 저한테 자격 논의로 얘기했지 주제 논의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석**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정확히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석**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회의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수석전문위원과 소속 공무원을 소개를……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이 발언 순서였잖아요.

○**위원장 윤영석** 충분하지 않습니까?

○**강선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종덕 위원 한 이후에 강선우 위원 발언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윤영석** 너무 이렇게 자꾸만 회의 분위기를 격화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강선우 위원** 회의 분위기를 격화시키는 것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은 위원입니다. 피해자가 회의 분위기를 격화시킵니까,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저는 앞서 우리 우재준 위원님께서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족합니까?

○강선우 위원 그 판단은 당사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용태 위원 그냥 진행해 주세요. 충분히 의견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석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선우 위원 사과조차 할 줄 모르는 위원과 앉아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김용태 위원 유감 표명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기형 위원 저희도 유감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우재준 위원님한테.

○위원장 윤영석 그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오늘 첫 회의고 위원님들 조금씩 서로 이해하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운 전문위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세일 전문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그 외의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모두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 공무원들 모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세한 이름과 직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또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공론화 위원회 구성, 그 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분과위원회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의, 역사적인 22대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많은 2030 청년세대들이 우리의 특위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간에 조금의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넓게 서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특위가 정말 생산적인,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구조 개혁에 생산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용태 김재섭 남인순 모경중 박수민 박홍배 오기형
우재준 윤영석 전종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운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허병조